



무등산의 하얀 겨울

지난 13일과 14일 오전까지 한파와 함께 광주에 3.2cm, 영광에 최고 8cm의 눈이 내렸다. 휴일인 14일 오후부터 날씨가 맑게 개면서 설국이 펼쳐진 국립공원 무등산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기상청은 15일 오후 또는 16일부터 광주·전남에 다시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무등산 군부대 이전 국방부도 동의했다 “특별회계 방식 국비지원 검토”

국방부가 무등산 정상부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이전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또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그간 고수해온 ‘기부대 양여’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무등산 정상복원,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부 시설기획과 구분현 중령은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에 공감한다”며 “기부대 양여 방식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방식 등 다양한 부대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 중령은 “무등산은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주체가 광주시에서 환경부로 바뀐데다 무등산에 주둔중인 부대의 무기 체계도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군부대 이전 논의가 시작된 것에서 의미가 있고, 새 후보지만 마련되면 옮긴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 방식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대 이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지난 2011년 국방부에 제시한 안으로, 새로운 이전 후보지에 군 건물을 지어주고(기부) 군은 현재 사용중인 부대 부지를 내놓는(양여) 방식이다.

반면 특별회계 방식은 국방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자체적인 특별회계를 통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국방부가 부대 이전의 주체로서 이전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세월호 슬픔에 절규... 잇단 화재에 질식

### ‘격랑 2014’ 이슈 진단

#### ①참사로 얼룩진 대한민국

4월 16일, TV 화면은 몇 시간째 침몰하는 세월호를 비추고 있었다. 온 국민은 두 눈 뺨히 뜨고 300명이 넘는 인원이 여객선 세월호에 갇힌 채 바다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괴로움과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슬픔에 절규했다. 〈관련기사 3면〉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여객선 침몰 사고가 아니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했고 ‘슬픈’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나라에 대한 기대도 함께

### “잊지말자” “기억하겠습니다” 다짐·각오 속

#### 사회 곳곳 ‘안전불감증’ 대형사고 잇따라 발생

무너져 내리게 했다.

선진국 문턱에 왔다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국민은 원망하고 분노했다. 절망감을 느끼며 자괴에 빠졌다.

사고후 곳곳에서는 ‘잊지 말자’,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각오가 터져 나왔다. 정부도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대적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주요 시설물 1263개소를 비롯, 다중이용시설(64개소)·전통시장(24개소)·숙박시설(87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전남도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1618개소와 교량·터널 등 923개소, 펜션 등 4154개소를 샅샅이 점검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기억상실증’은 치유되지 못했다. ‘별일 없을거야’, ‘난 괜찮을거야’라는 식의 낙관주의와 무관심·무책임함은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비상 경고를 꺼고 있는 사회 곳곳의 세월호는 임계점을 넘어서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한 달여 만인 지난 5월 28일 장성 요양 병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단 6

분 만에 21명이 숨지는 등 2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11월 15일에는 담양군 대덕면 황도읍집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래시장 소화 설비는 미흡하기만 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점검으로 준공을 앞둔 건물이 헐리는 일도 벌어졌다. 목포·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여객선·차도선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였지만 여객선 선원들은 여전히 운항 중 화투를 치고 부실한 고박(묶음) 상태로 차량을 실어 날랐다. 유람선이 구명동의를 묶어놓은 채 불안한 출항을 해도 해경의 걸잡기 점검은 달라지지 않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도 벌써 흐릿해졌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매뉴얼’ 정비에 나섰지만 8개월이 되도록 ‘정비중’이다.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매뉴얼을 숙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리다.

정부와 국회가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쏟아놓은 관련 법안 50여개는 여전히 ‘계류중’인 형편이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기억하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끊임없이 거론됐던 말이지만 우리 사회는 정말 잊지 않았을까.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U대회 D-200...대회준비 ‘실전 체제’ 돌입

전 세계 대학생의 스포츠 제전을 이끌 2015광주세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대회 200일 앞두고 준비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실전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U대회 D-200일 준비상

황 보고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실전 체제 전환을 선포할 계획이다.

내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제28회 U대회에는 170개국 2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1개 종목에서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게 된다. U대회는 전세계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하는 올림픽 규모의 종합스포츠대회로, 국제도시 광주를 세

계에 알릴 수 있는 대형 이벤트다. 대회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 국가별 참가신청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 3일까지 선수단 규모를 알리는 ‘수엔트리’ 절차를 마감하는 등 실제 대회 준비에 나선다.

조직위는 또 대회 현장운영 매뉴얼인 현장운영계획(VOP)을 41개 경기(대회시설)분야, 31개 비경기(지원시설) 분야 등 총 72개 분야로 세분화해 대회 운영을 준

### 경기장 평균 공정률 80%대

#### 참가국 170여개...역대 최대

비중이다. 지난달부터 매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미흡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대회운영 오류 최소화과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키우고 있다.

경기장 준비 상황도 순조롭다. 현재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80%대로 계획대로 진행중이다. 국제대회 최초로 도심 재건축방식을 채택한 광주U대회선수촌도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U대

회 참가 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단일팀 여부도 여전히 미행중이다. 조직위는 지난 7월초 167개 FISU 회원연맹과 21개 경기종목의 연맹 가맹국 등 모두 201개 국가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으며, 현재 101개국에서 참가 의향서를 보내왔다. 참가국은 170여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석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U대회는 광주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발전의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구세군 자선냄비 체험 ▶6면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은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우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0-5454 (수신시간: 09:00~18:00)